



박인비



양희영



허미정

한국 남자들 난코스서 펄펄 '톱10' 8명

US여자오픈 골프대회 1R

코스는 함해도 한국여자골프선수들은 펄펄 날았다.
9일(한국시간) 역대 대회 중 가장 험난한 코스로 기록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오크먼트의 오크먼트 골프장(파71.6천613야드)에서 펼쳐진 제65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 1라운드에서 2년 전 우승자 박인비(22·SK텔레콤)와 양희영(21·삼성전자), 허미정(21·코오롱)이 나란히 1언더파 70타를 치며 공동 2위에 올랐다.

박인비·양희영·허미정 선두와 1타차 공동 2위

신지애 62위·지난해 우승 지은희 공동 73위

으로 무장한 코스에서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낸 선수는 공동 2위까지 5명에 불과했다.
2008년 US여자오픈 우승으로 화려한 한해를 보냈던 박인비는 이후 부상에 시달리면서 고전했지만 올해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에 진출, 샷 감각을 되찾았다. 일본 무대에서 한차례 우승과 여러차례 준우승을 차지하며 삼국랭킹 4위에 올라있는 박인비는 무려 287야드를 날린 티샷을 앞세워 버디 4개를 잡고 보기는 3개로 막았다.

양희영도 1번홀(파4)에서 2타를 잃기도 했지만 이글 1개에 버디 3개, 보기 2개를 곁들여 미국 무대 첫 우승의 발판을 만들었고 지난해 세이프웨이 클래식 우승자 허미정도 버디 2개, 보기 1개를 적어내는 선전을 펼쳤다.
국내와 서희경(24·하이트)의 활약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KIA클래식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서희경은 보기 2개, 버디 1개로 1오버파 72타를 쳐 플라 크리머(24) 크리

스티 커(33·이상 미국) 등 강호들과 공동 8위에 올랐다.
안시현(26·코오롱)과 김송희(22·하이트), 이은정(22), 이지영(25), 재미교포 크리스티나 김(26·한국명 김초롱)도 공동 8위 그룹에 자리했다.
지난해 우승자 지은희(24)는 6오버파 77타를 적어내 공동 73위에 머물렀다. 신지애는 이글 1개를 잡았지만 더블보기 1개, 보기 5개를 쏟아내며 공동 62위(5오버파 76타)로 처졌다.
위성미는 버디는 1개도 잡지 못하고 더블보기 3개, 보기 5개를 적어내며 무려 11타를 잃고 공동 131위(11오버파 82타)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점쟁이 문어 "스페인 우승"

'파울' 지켜라 비상
남아공 월드컵 대회에서 독일의 6경기 승패를 모두 맞혀 화제를 모으고 있는 문어 '파울'(Paul)이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남아공월드컵 결승전(한국시각 12일 오전 3시30분)을 앞두고 스페인의 승리를 점쳤다.
파울은 9일(한국시각) 독일의 오버하우젠 수족관에서 열린 결승전 예상에서 스페인의 승리를 점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파울의 예언은 국가가 그려진 두 개의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에 각각 홍합을 넣어두고, 어느 상자의 홍합을 꺼내 먹느냐로 승리팀을 말하는 방식이다.
파울은 스페인과 네덜란드 국가가 그려진 상자가 내려오자마자 스페인 상자의 뚜껑을 열고 홍합을 꺼내 먹었다.
한편 이번 대회 최대 스타로 부상한 독일 '점쟁이 문어' 파울의 안전에도 전 세계 축구팬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이 스페인과 준결승에서 패할 것이라는 점괘가 들어맞자 상난 독일팬들이 '구워 먹자'며 불을 뿜었고, 이에 예언의 '수혜국'인 스페인은 총리까지 나서 문어의 '신변 보호'를 주장했다.
9일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8일 준결승전 직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 문어가 걱정된다. 파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팀을 보내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농담 섞인 발언이었지만 문어의 신통함에 놀란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였다.
엘레나 에스피노사 스페인 환경 장관은 한술 더 떠서 "유럽 이사회의 장관회의에서 문어 파울의 안전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 문어를 '위험에 처한 동물'로 지정해 독일팬들이 먹어치우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독일 서부 오버하우젠 해양생물박물관 수족관에 있는 2살짜리 문어 파울은 그동안 남아공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팀의 모든 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춰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경기 결과에 실망한 독일 팬들은 주요 온라인 게시판에 '미친 문어가 다 맞혀버렸다. 기를 뿜겨라', '구워 먹자'는 악성 댓글을 쏟아내며 분풀이를 했고 주요 일간지들도 이런 반응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연합뉴스

펠레도 "스페인 꿈아"

축구황제 펠레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우승국으로 스페인을 꼽았다.
펠레는 8일 브라질의 반데이란테스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페인에 이번 남아공 월드컵의 챔피언이 될 자격이 있다"면서 "스페인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펠레는 남아공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브라질과 스페인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다가 16강전을 앞두고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가운데 한 팀이 우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결승에서 브라질이 독일과 아르헨티나 중 한 팀과

고이도스 '꿈의 59타'... PGA 최소타 타이

통산 4번째 대기록
존디어 클래식 1R

풀 고이도스(46·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사상 네 번째로 한 라운드에서 59타를 기록한 주인공이 됐다.
고이도스는 9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실비스의 디어런TPC(파71.7257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존디어 클래식(총상금 440만달러) 첫날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12개를 쓸어담아 12언더파 59타를 쳤다.

59타는 PGA 투어에서 한 라운드 최저타 타이 기록으로 1999년 보복호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데이비드 듀발(미국)이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다시 나왔다. 듀발과 고이도스 외에도 1977년 뎀피스 클래식과 1991년 라스베이거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칩 벅이 59타를 친 적이 있다. 앞선 세 차례 59타는 모두 파72에서 나왔다.
고이도스는 드라이브샷 정확도 92.9%, 그린 적중률 88.9%에 퍼트도 22개로 막는 등 모든 샷이 적격 들어맞았다. 1993년부터 PGA 투어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한 투어 18년차 고이도스는 1996년 베이힐

인비테이셔널, 2007년 소니오픈 등 두 차례 우승 경험이 있지만 세계 랭킹 137위에 머물고 있는데도 나이도 선을 바라보고 있어 이번 대기록 작성은 의외라는 평이다.
고이도스는 "출인원도 10차례 해봤고 더블이글(알바트로스) 역시 세 번 했다. 오늘 해낸 59타 역시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는 버디 5개로 5타를 줄여 5언더파 66타, 공동 11위로 1라운드를 마쳤고 최경주(40)는 버디 5개, 보기 4개로 1언더파 70타에 그쳐 공동 82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돌아온 볼트 100m 시즌 최고 9초82

스위스 아슬레티시마대회

아킬레스건 통증을 딛고 트랙에 돌아온 '번개' 우사인 볼트(24·자메이카)가 단숨에 100m 시즌 최고 기록을 냈다.
볼트는 9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의 스타데 올랭피크 델라 폰테에서 열린 국제 육상경기연맹 다이아몬드리그 아슬레티시마대회 100m 결승에서 9초82를 찍어 팀 동료 요한 블레이크(9초96)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9초82는 올해 작성된 기록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자메이카 탄환 듀오인 볼트와 아사

파 파월이 각각 수립했다.
지난 5월 대구국제육상대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100m를 뛰여 9초86으로 우승했던 볼트는 50일 만에 0.04를 앞당겼다.
5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 대회 후 아킬레스건 통증을 호소한 볼트는 6주간 재활 치료에 전념했고 이번 대회를 복귀 무대로 삼았다.
볼트는 내년 대구 세계선수권대회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초점을 맞춰 올해는 다치지 않는 것에 최대 역점을 뒀다. 100m(9초58)와 200m(19초19) 세계기록을 깨는 것은 자연스레 내년 목표로 넘어갔다.
/연합뉴스

월드리그서 네덜란드에 져

한국 남자배구가 2010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에서 11연패에 빠졌다.
한국은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네덜란드와 경기에서 선전하지 못하면 1승은커녕 승점 1점도 따내지 못할 위기에 몰렸다.
주요 박철우(삼성화재)와 이경수(LIG손해보험)를 비롯해 센터 윤봉우, 하경민(이상 현대캐피탈) 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힘과 높이 모두 약해진 한국은 연패를 끊으려 끝까지 사력을 다해 맞섰지만, 주전 평균신장이 2m3에 달하는 네덜란드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28위)와 한 조를 이룬 한국은 브라질과 불가리아에 모두 4전 전패로 몰려나 데 이어 네덜란드에도 3연패를 당했다.
한국은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네덜란드와 경기에서 선전하지 못하면 1승은커녕 승점 1점도 따내지 못할 위기에 몰렸다.
주요 박철우(삼성화재)와 이경수(LIG손해보험)를 비롯해 센터 윤봉우, 하경민(이상 현대캐피탈) 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힘과 높이 모두 약해진 한국은 연패를 끊으려 끝까지 사력을 다해 맞섰지만, 주전 평균신장이 2m3에 달하는 네덜란드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부음
▲이오숙씨 별세 고제철(송원그룹 회장)씨 상배, 고경주(금강기업 사장)·혁주(SY·SP·탱크터미널 사장)·경숙·경미(송원대학 교수)·경희씨 모친상, 정대훈(송원리조트 사장)·노도영(광주과학기술원 교수)·박석민(광주미르치과 원장)씨 빙모상=발인 11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062-220-3352.
▲임현수씨 별세 웅만·윤숙씨 부친상=발인 11일(일)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장형문씨 별세 재호(4대 진도군의 회 의원)·재율(럭키종합 조정사장)·환호(자모병원장)·재만(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장)·혜수(전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씨 부친상 황승룡(호남신학대 명예총장)씨 빙부상=발인 10일(토) 전남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김승훈·봉만·씨 모친상 박태오 씨 빙모상 발인: 10일(토) 8시30분 장지: 화순군 북면 선영 연락처: 260-4418
▲오영려 씨 모친상 유등호·김병삼·성영훈·김준호 씨 빙모상 발인: 10일(토) 8시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60-4407
▲김문훈·경성씨 부친상 이경숙씨 빙부상 발인: 10일(토) 7시40분 장지: 담양김장공원 연락처: 260-4406
▲장한택·문태씨 모친상 발인: 10일(토) 9시 장지: 담양군 한주교 묘역 연락처: 260-4406
▲0111기부 부친상 이규삼·최낙진·이영덕·조영종·원도중씨 빙부상 발인: 10일(토) 14시 장지: 곡성 칠전 선영 연락처: 260-4403
▲위원·점·극·돈씨 모친상 발인: 11일(토) 8시 장지: 담양군 관안읍 선영 연락처: 260-4408
▲기시할·세용씨 부친상 최중숙씨 빙부상 발인: 10일(토) 9시10분 장지: 관산구 선영 연락처: 260-4411